

샌들에 양말을 매치하는 '아재 패션' 이 수면 위로 올 라온 지 수년째. 2021 S/S 시즌에는 확실한 트렌드로 자 리잡을 듯하다. 패디큐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, 간 절기에도 물과 샌들을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어 알고 보면 여러모로 편리한 스타일링이다.

'ALLERTS' (allets.com)가 '샌들+양말' 스타일링을 소개했다.



◈ 플라워 패턴+레이스

벨크로 샌들에 다양한 색상의 양말을 매치하 는 것이 '샌들에 양말 신 기'의 기존 법칙이었다 면, 이번 시즌에는 다양 한 패턴과 소재로 구성 된 '샌들에 양말 신기' 를 시도해봐도 좋을 듯 하다. 디자이너 안나수 이(Anna Sui)는 2021 S/S

컬렉션에서 플라워 프린트와 레이스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였는데, 이는 슈즈 스타일링에도 그대로 적용됐다. 플라워 패턴 양말과 레이스 달린 샌들이 마치 액세서리 처럼 멋스럽다.



◈ 가죽+울 양말

캐주얼하지만 그렇다 고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양말 연출의 비결은 의외 로 단순하다. 바로 소재 를 달리한 것. 보스(Boss) 는 면이 아닌 포근한 울 양말을 선택했다. 샌들에 주로 사용되는 고무 소 재는 가죽으로 변경했다. 관리하기 까다로운 밝은 색의 가죽이 고급스러운 무드 를 만들어낸다.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을 자연스 럽게 흐르도록 둔 것도 눈 여겨볼 만한 요소다.



◈ 데님 소재+면 양말

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텔 코셰(Christelle Kocher)는 오트 쿠튀르 (상류층을 위한 맞춤옷) 의 정교함과 스트리트 패션의 자유분방함을 융합해 옷을 만든다. 이 번 샌들+양말 스타일링 에도 코셰만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갔다. 누구나

서랍 속에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한 흰색 면 양말에 데님 소재의 샌들을 매치한 것. 재밌는 골드 글리터 버클 장 식도 눈여겨보자.



◈ 슬리퍼+양말

'샌들에 양말 신기 스 타일링'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'슬리퍼에 양 말 신기'를 시도해보자.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장면을 상상해보 자. 다소 가벼워 보이지 않는가? 게다가 실내화 처럼 보일 수도 있다. 패 션 브랜드 펜디(Fendi)는

여기에 양말을 더했다. 펀칭으로 로고와 무늬를 더해 레 이스처럼 보이는 양말을 매치한 것이다. 덕분에 봄과 여 름에 어울리는 산뜻한 스타일링이 완성됐다.

사진=ALLERTS

백세건강지킴이 우니,롱비치 人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

•시니어 약 전문상담 •25년 병원 임상경험



약사 노혜경 Pharm.D.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

Howar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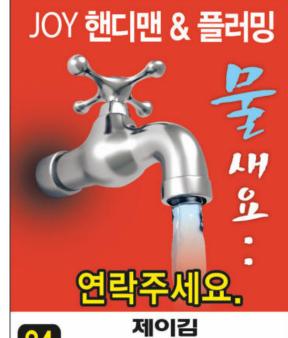
Del Amo Blvd. 와 Pioneer Blvd. ② 2014 PIONEER BLVD. MART 9

562-866-6011





This pharmacy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under a license from Health Mart



714.249.5469



Palo Verde St

Harvard









9620 Fremont Ave., Montclair, CA 91763

(909) 621-4751

한국어 상담: Faith Lim (562) 714-7792 www.communityech.com

아늑하고 편안함,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.